

90년 명동지킨 옛 제일은행, 럭셔리 품은 백화점 재탄생

신세계백 '더 헤리티지' 개관 10여년 걸쳐 복원·재단장 마쳐

1·2층에 브랜드 '샤넬' 입점하고 4층엔 역사·미술품 갤러리 조성 5층에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

90년간 명동을 지켜 온 옛 SC제일은 행 본점 건물이 럭셔리를 품은 백화점으로 재탄생한다.

신세계백화점은 10여 년에 걸쳐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을 복원·재단장한 끝에, 본점 '더 헤리티지'를 개관한다고 9일 밝혔다.

더 헤리티지는 럭셔리 브랜드,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신세계백화점의 복합 쇼핑 공간으로,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을 리뉴얼해 조성됐다.

근대 건축 유산을 쇼핑과 문화로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더 헤리티지를 통해 럭셔리와 전통, 미래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럭셔리·한국 전통 콘텐츠 채웠다

먼저, 1층과 2층에는 럭셔리 브랜드



신세계 '더 헤리티지' 외관.

/신세계백화점

샤넬이 입점한다. 샤넬과 오랜 기간 협업해 온 건축 디자이너 피터 마리노가 샤넬 공간 설계를 맡아, 역사적 건축미를 보존하는 동시에 샤넬 하우스의 고유한 코드와 파리의 세련미, 장인 정신 등 현대적 요소를 공간에 녹여냈다.

건축학적 가치가 가장 높은 4층에는 대한민국 유통의 역사와 흐름을 조망하는 역사관과 함께 미술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들어선다.

특히, 역사관에서는 신세계가 소장

한 다양한 유물과 사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갤러리에서는 개관 전 시로, 1930~50년대 남대문 일대와 신세계의 역사를 조명하는 사진전을 마련했다.

5층에는 한국 문화 체험 공간인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들어선다. 일일 강좌 행사 등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강연, 워크숍 등이 주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세계백화점은 한식연구소가 한국 전통 디저트를 연구·개발한 메뉴를 선보이는 '디지털 살롱'과 옥상 정원을 조성해, 모든 방문객에게 개방한다.

지하 1층에는 한국 전통 공예 기프트샵이 마련됐다. 장인·작가들과 협업한 독점 상품과 선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번 더 헤리티지 공간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VIP)이 이용할 수 있는 '더 헤리티지 발렛 라운지'도 새롭게 조성됐다.

◆역사 숨결 그대로, 오늘에 되살리다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은 지난 1935년 준공돼, 1989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된 이 건물은 대칭 구조와 화려한 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네오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한국전쟁당시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준공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SC 제일은행이 신세계에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을 매각하면서 리뉴얼 작업이 본격화됐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복원 작업은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여

러 차례 심의와 30여 차례에 걸친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세심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1935년 준공 당시와 약 90%에 달하는 수준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1층 천장의 꽃문양 석고 부조는 페인트를 제거하고 파손 부위를 보수해 준공 당시 모습으로 복원했다. 건립 당시 설치됐던 금고 문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4층으로 옮겨 전시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의 경우는 화강석 마감재를 철거하고, 준공 당시와 같은 타일 마감 형태로 복원했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던 타일의 성분을 분석하고 별도 형틀을 제작해 타일을 재현하는 등 세심한 공정을 거쳤다.

신세계백화점 박주형 대표는 "신세계의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담아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며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관광의 즐거움과 쇼핑의 설렘 문화의 깊이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자체상품 연중 최대 할인전 롯데마트, 3주간 'PB페스타'

오늘좋은·요리하다 등 500여개 선정 일부 5개 구매시 1개 추가, 2+1 등 진행

롯데마트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연중 최대 자체 브랜드 상품(PB) 할인 행사 'PB 페스타'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오늘좋은'과 '요리하다' 등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 500여 개를 선정해 최대 반값에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요리하다 갱영 순살닭강정', '오늘좋은 태양초 고추장' 등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라면 상품인 '요리하다 소고기라면', '요리하다 불맛짜장라면'과 냉동식품 '요리하다 쫄깃한 찹쌀탕수육' 등이 행사 품목에 포함됐다.

일정 수량 구매 시 추가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오늘좋은 오란

다', '오늘좋은 백미밥', '오늘좋은 컵누룽지' 상품에 한해 5개 구매 시 1개 추가 증정한다. '오늘좋은 맛밤·맛고구마', '오늘좋은 살코기참치·고추참치 4입', '오늘좋은 파스타소스·면'은 2+1 행사를 진행한다.

생필품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오늘좋은 부드러운 3겹 화장지', '오늘좋은 락스' 등 상품이 준비됐다.

롯데마트·슈퍼 문경석 식품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팀장은 "이번 'PB 페스타'는 오늘좋은 2주년을 맞아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연중 최대 PB 상품을 최대 할인율로 준비했다"며 "바쁜 일상 속 쇼핑의 고민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최적의 품질 모두 갖춘 PB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고메이494에 '메종 라콩비에트' 1호점 오픈

한화갤러리아, 신규식당 15개 유치

한화갤러리아가 갤러리아명품관 식품관인 '고메이494'에 새로운 외식 브랜드를 다수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내달까지 총 15개 신규 식당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 중 11개 브랜드는 업계 최초 오픈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버터 전문점 '라콩비에트'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전문점 '메종 라콩비에트' 국내 1호점이 문을 연다. 이외에도 '마마리누들바', '일판함박', '담택', '팻카파우' 등 국내 유명 셰프들의 식당 브랜드가 입점한다.

커피와 디저트 분야 브랜드도 들어온다. 커피 브랜드 '스테레오스코프', 이탈리아 나폴리 감성 베이커리 전문점 '아모르나폴리'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브랜드 관계자들이 프랑스 '라콩비에트'의 베이커리 전문점 '메종 라콩비에트' 국내 1호점인 선보인 빵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글로벌 브랜드와 스타 셰프들의 입점으로 프리미엄 식음료(F&B)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미식 경험을 혁신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제로 맛집' 콘셉트 칠성물서 31종 할인

롯데칠성음료가 공식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이달 25일까지 '젤로 맛있는 제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젤로 맛있는 제로 기획전은 '제로 맛집'을 콘셉트로,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는 제로 칼로리 음료를 소개하고 칠성몰만의 재미있는 쇼핑 경험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롯데칠성음료는 행사 기간 '칠성사이다 제로', '밀키스 제로', '핫식스 더킹 제로' 등 총 31종의 제로 칼로리 음료를 5~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경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칠성몰 경품 뽑기 행사에 응모하면 미니 냉장고, 치킨·햄버거 상품권, 칠성몰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다.

롯데그룹 온라인 쇼핑 페스타 '온쇼페'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이달 2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3000명에게 제로 칼로리 음료 7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로칼로리 음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음식과 함께 제로 칼로리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제로 칼로리 음료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G마켓, 스타배송 이용 판매자 보관비 지원

14개 카테고리 약 15만개 상품 적용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스타배송'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스타배송을 이용하는 기존 판매자는 물론, 신규로 가입하는 판매자 모두에게 물류 보관비와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타배송은 G마켓이 운영하는 도착 보장형 물류 서비스로,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타배송은 G마켓이 보유한 동탄물류센터에 입고된 14개 카테고리, 약 15만 개의 상품에 적용된다.

가장 먼저, G마켓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판매자에게 동탄물류센터 물류 보관비를 100% 지원한다. 정상재고에 한해 기존 판매자는 기본 보관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판매자는 상품 등록 후 최대 6개월간 보관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타배송 도착보장 서비스 이용료 면제 혜택도 있다. 기존 스타배송 서비스 이용 판매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신규 판매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기에 따라 6월까지도 최대 100%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오뚜기 '열치즈라면' 용기면 편의점 출시

오뚜기가 열라면에 치즈를 첨가해 한층 더 부드럽고 고소한 '열치즈라면' 용기면(사진)을 출시했다.

'열치즈라면'은 오뚜기 대표 라면 중 하나인 열라면의 화끈한 매운맛을 적용해 알싸하고 맛있게 매운 맛을 자랑한다. 또한 '치즈큐브후레이크'를 첨가하여 보임성과 씹는 맛을 더했으며, 특히 다양한 치즈 원료를 적용한 치즈별칩스프는 치즈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해 열라면 매운맛과의 조화를 한층 극대화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화끈한 열라면에 부드럽고 고소한 치즈를 조합해 매운맛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열라면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늘어난 만큼 치즈가 조화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